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첫 삽’

도, 오늘 착수보고회... 1069억 투입 2023년 완공 “마을회·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매일 간담회 개최”

‘제주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사업’이 22일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부지 3만4737㎡에서 이뤄지며, 1일 처리용량은 340t(가량)이다. 사업기간은 32개월(시공 24개월, 시운전 8개월) 소요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69억6900만원(국비 534억8000만원, 도비 534억8900만원)

이다. 실시설계 적격업체는 (주)태영건설공사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인구 증가 및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색달동마을회에서 입지 결정 동의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진행한 결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태영건설공사가 선정됐지만, 탈락업체로부터 ‘낙찰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착수보고회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각’ 결정을 함에 따라 도는 22일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기본설계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과정, 소화슬러

지 및 하수처리 공정 등을 점검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색달동마을회와 봉개동마을회는 물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일 간담회를 통해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0 제주애 빠지다 ③ 이기숙 제주시 귀농·귀촌협의회장



이기숙 제주시 귀농·귀촌협의회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제주가운’에서 ‘제주무포’를 들여보이며 추석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 유일 제주특산물 ‘무포’ 만들 것”

제주산 100% 원재료 활용 귀농·귀촌센터 건립 속원

제주산 월동무는 겨우내 차가운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숙성된 맛을 자랑하는 제주의 대표적 월동채소다. 그러나 최근 과잉생산으로 매년 처리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제주산 월동무를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특화한 인물이 있다. 바로 이기숙(54) 제주시 귀농·귀촌협의회장이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여러 주주들과 함께 주식회사 제주가운을 공동 운영 중이며 서귀포시 성읍리에 무 공급 공간도 만들었다.

지난 18일 제주가운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스킨케어 전문가다. 제주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부재생 능력이 뛰어난 마유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주를 찾았다가 2013년 정착했다. 지금도 기능성 마유크림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산 월동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도전에 나섰다.

그 첫 결실은 청정 제주산 친환경 무를 육포형태로 만든 ‘제주무포’다. 이름만으로는 생소하고 맛 또한 궁급증을 불러온다.

이 회장은 제주무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세계에서 무를 갖고 육포 형태로 만든 제품은 아마 유일할 거예요. 특히도 출원했고 무엇보다 100% 제주산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제품의 강점이지요. 무는 물론 껌과 콩가루, 보리 등이 청정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고기로 만든 육포와는 달리 정과정

태인 제주무포는 도라지로 만든 수제 조정에 무를 넣어 12시간 조리고 건조하는 작업을 3회 반복해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다. 여기에 제주산 참깨나 콩가루를 묻혀 고소함을 더한다. 때문에 달지 않고 쫄쫄처럼 쫄쫄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소화는 물론 감기 예방, 비타민C 보충, 다이어트에도 탁월하다.

이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의 자연을 품은 제주 동부지역이 주산지인 당근과 서부지역의 비트에도 적용해 포를 만들 계획이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손바닥신인장 열매인 백련초와 제주감귤 껍질을 말린 진피, 그리고 새싹보리, 브로콜리, 비트 등도 가루로 만들어 포에 토핑으로 얹을 계획으로 현재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 유일의 제주특산물 무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천연재료를 쓰는 만큼 건강 기능성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 회장은 요즘 해삼(HACCP) 인증에다 추석 선물세트 물량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사)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 백련연합회와 대구경북연합회 안동융합회가 합동으로 ‘프리미엄 주안상’과 ‘건강 한가득 선물세트’ 2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세트에는 제주무포를 비롯해 삼다불고기반복음, 한라산야생꿀, 제주흑돼지육포, 한라봉과즙 등 제주산 5종이 담겨 있다.

이 회장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귀농·귀촌센터 건립을 통해 자신의 겪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싶다는 게 소망이다. 지난 7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제주살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백금탁기자

제주대 입구~아라동 금천마을 2.1km 확장

남북축도로 종합개선계획 5·16도로 분산 효과 기대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제주시 아라동 금천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된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의 제주시내권 교통량을 일정부분 분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제주시는 제주대 입구에서 금천마을을 잇는 총연장 2.17km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을 오는 10월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노선은 제주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남북축도로 종합개선계획 수립시 단기개선(2018~2020년) 계획구간에 포함된 구간으로 조기 개설 필요성이 요구되는 노선이다.

총 155억원(보상비 76억, 공사비 79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55억원이 투입됐다. 부지의 66%를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잔여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해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도로가 완공되면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이 도로에 인접한 아라동 성장관리방안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

발 압력이 높은 아라2동(42만㎡)과 용담2동(25만㎡), 애월읍 유수암리(49만㎡) 지역 3곳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할 상태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내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선형에 대해 토주주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무·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건축물 신축시 견제율과 용적률을 취약지구 수준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잠시 숨고르기 21일 백로들이 월동지를 찾아 동남아시아로 이동중 휴식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해안을 찾았다. 강희만기자

빨소라 ‘드라이브 스루’ 판매 23일 함덕항·24일 자구리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23~24일 이틀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제주산 소라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들이 올해 들어 제주산 소라의 일본 수출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25일 제주 빨소라 퍼치구이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에 이어 추석연휴를 맞아 소라 소비 촉진행사를 벌인다.

23일에는 함덕어촌계 주관으로 함덕항 인근에서, 그리고 24일에는 서귀포수협 주관으로 자구리공원 인근에서 각각 진행된다.

빨소라·자숙소라(삶은 소라)·소라꼬치 등이 판매되며 품목별 판매가격은 빨소라(5kg) 3만원, 자숙소라(500g) 3만원, 소라꼬치(3꼬치) 1만원이다. 백금탁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은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62년부터 지금까지 총 259명(개인 254, 단체 5)이 수상했다. 추천대상은 제주도민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 포함) 또는 단체이며,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기여한 공적이 현저할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수상부문은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 재외도민, 국외 재외도민 총 9개 분야로 수상후보자는 각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PAA, 바실러스, 효소당밀, 펄빅산, PGA, 왁스바실러스, 발근제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밍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펜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